불교는 생활의 진리·삶의 과학
내가 주인 돼 마음 계발해야

☞ 29면에서 계속

는 자동적으로 꽁지가 꽁지를 물고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과거에 입력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거라면 그냥 '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그러고선 잘 생각을 해서 이익할 거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익하지 않을 거라면 잘 돌아가게끔 거기 놓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야 어느 때쯤 가다 보면 감응이 되고 알게 됨으로써 '아! 이런 거를 내가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고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두들 지금 여여하게 살면서도 사는 게 없습니다. 여여하게 사는 반면에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무(無)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놔야 된다,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맡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는데 똑바로 탁 들어가 맞아야 할 텐데, 화살이 이리로 가서 맞고 저리로 가서 맞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사에 의심이 가고 확신이 생기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면 중심을 꿰뚫는, 전체를 꿰뚫는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주팔자가 있는지…

문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요? 몇 년 전에 흥미로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벼운 기분으로 보았지만 안 좋은 말을 들어서인지 계속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털어 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불쑥 생각이 나고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 사주팔자를 본 것도 주인공의 장난이니 주인공에 되맡겨 놓으면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에 놓으려고 해도 주인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금세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되곤 하는데 나 스스로도 자신이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 버리고 편안한 마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놓고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살방이 들어서 집안이 잘 안되고 누가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또 누구는 어디로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꼭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미약하고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까지 그토록 애를 써서 고귀한 생명을 헝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흔들리고 자기로 살지 못하고선 남의 말에 따라서 그냥 휘휘 돌아가야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노예지 자기 스스로 사는 참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우환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끄달리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안은 가난하고 항상 오락가락 융합이 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거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것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가 제가끔들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혼자 왔다 혼자 가는데 서까래 공덕으로서 자기의 뿌리이자 씨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녹여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되고 돈으로도 안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마라. 바깥에서 그 많은 이름을 찾지 마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름 없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마로도 이름이 쓰여지고 형님으로도 쓰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며느리로도 쓰여지고 딸로도 쓰여지고, 또 아내로도 쓰여지고 동생으로도 쓰여지고 누이로도 쓰여지고 갖은 각색으로 이름이 쓰여지는데, 어찌 같은 한 이름만으로 이루종차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미륵보살이다, 용왕이다 조왕이다, 신장이다, 이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 이름이 다 나가는 것을 어찌 그 이름을 일일이 이루종차 부르면서 타의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생활 불교이면서 생활의 진리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 삶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계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실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놨는지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과학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바로 마음에서 계발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써 생활을 융통성 있게 자유스럽게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친, 바로 으뜸가는 과학적인 우리 살림살이일 겁니다. 그런 과학의 삶을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야 할 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나 대면 이후 공부

문 현재의 나와 주인공이 한마음이고 둘이 아님을 체득하게 되는 것은 참나를 깨친 후에라야만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깨치기 전의 과정에서 주인공을 절실히 믿고 관하는 과정 중에는 이루어짐(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없는 건지요. 둘째는 참나와 대면한 후에 본격적인 공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셋째는 주인공과 내가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너무 좀 앞서 조급증을 낸 듯합니다.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스님 말씀에 눈이 번쩍해서 한참을 읽다가 질문 올립니다. 저도 크게 깨우쳐서 인간으로서의 참도리를 알 수 있는, 한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고픈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둘 아닌 도리서 무궁무진한 이치
깨우치고 난 뒤 공부가 참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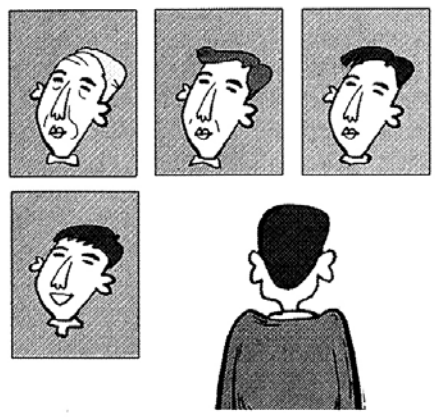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공부는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미련하니까 한 길만 파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 군데로만 파고 들어가거든요. 미련하게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더 빠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알려고 한다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누가 잘한다고 하면 그냥 그것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그리로 우 몰리고 이러는데, 그게 말 배우러 다니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래도, 내가 깨우치고 난 뒤에 보면은 그거를 알게 된다하더라도 내가 깨우치지 못한 채 그냥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깨우친 사람은 둘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둘 아닌 공부다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거기에 붙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조선사도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여 년이 넘도록 다니셨단 말입니다. 몸은 다녔으되 다닌 사이가 없이 면벽을 하고 다니신 거죠. 바깥 경계를 보면서 안으로 놓고 안으로 놓고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가 말하듯 '주인공, 너가 있다는 것을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해야 됩니다. 깨우친 사람에게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자불하고 상봉할 때, 생각이 안 났을 땐 떨어졌고 생각이 났을 땐 그냥 둘이 아니게 항상 붙어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도 내 전력과 저 전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한 군데서 전력을 쓰게 되고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둘 아닌 도리에서만이 무궁무진한 그런 이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난 뒤에 진짜 공부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하려면 주춧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올리려면 애당초 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너만이 너를 이끌어 간다' 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북하면 어떤 선지식들은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게 부처님 법이다'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말로써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뜻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형성시켰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자기이니까, 과거 수억 겁을 내려온 자기이니까 그런 거죠. 깨우친다는 언어도 붙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을 못하고 제대로 용(用)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거 쓸 때 요거 쓰고 요거 쓸 때 이거 쓰고 자유스럽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상황을 봐서 환경에 따라서 잘 그렸으면 특상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기도 보지도 않고, 저 나무가 퍼런지 저 나무 줄기가 흙빛인지 그것도 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 그리는 거나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상은 못 받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불어 같이, 더불어 같이 공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시시때때로 찰나찰나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거고, 환경에 따라서 용을 하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한생각을 내는 거 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색에 착을 두지 말고, 분홍색 따로 착을 두고 빨간색 따로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삼십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내가 그림을, 갖추어져 있는 환경을, 오관을 통해서 잘 보고선 한 가지를 갖다 쓰고, 요거 다하고 또 한 가지 갖다 쓰고 하듯이 요량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유유하고 편리하다 이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의식의 두 얼굴

저자 밀풍 리농(密豊 理農)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깨달음이란 이론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임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불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효 · 경허 · 성철 · 서옹 · 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면 큰일 아닌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수련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 · 간경화 ·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밀풍 리농(密豊 理農) 著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의단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 032-347-8118~9
Fax · 032-341-8117
◆저자 상담 : Tel · 011-559-8118, E-mail · reenong@mindbody co kr
◆도서 주문 : Homepage · http://www mindbody co 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 의단원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 성 합장